

주일 예배 11시

2017년 12월 24일(성탄절 예배)

\*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

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잡음

예배로의 부름

사회: 김성진 집사

\*찬송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고요한 밤 거룩한 밤(109장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 함께

\*기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주기도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 함께

\*교독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119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 함께

\*찬송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기쁘다 구주 오셨네(115장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 함께

기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김정수 형제

찬송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그 맑고 환한 밤중에(112장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 함께

말씀1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현윤경 집사

말씀2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고명환 목사

-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(누가복음 2장 8-20절)

\*찬송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천사들의 노래가(125장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 함께

교회소식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담당자

기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담당자

교회소식

-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. 꼭 참여해 주세요.

- 크리스마스 이브모임(밤 11시):

- 새해 맞이 모임(12월 31일 밤 10시 30분)을 가집니다.

:식사+ 기도회+ 성찬식

-금주 읽을 성경: 시편 73-79편, 베드로전후서

- 기도해 주세요-
- 1. 팔루스 교회에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보내 주소서
- 2.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
- 3.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소서
- 4.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

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, 수요일 오후 7시, 월-금 오전 5시20분, 토요일 오전 6시

순례자의 목상

그리스도를

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사귀을 하십시오.

그리스도 안에는 휘장들이 드리워져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.

그 휘장의 접혀진 곳마다

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.

그러므로 더 깊이 주님께 파고드시오

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십시오.

하루 중 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

주를 위해 비축해 놓으십시오.

수고하면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이 땅의 것에 과도한 무게를 두지 마십시오.

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고 무게를 두십시오.

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한 사랑이며

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도록 하십시오.

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

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영광을 입도록 하고

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
우리에게 천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더라도

우리가 사랑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.

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

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.

**나의 나사렛 예수님**

배경옥

참 구원을 갈망했던  
무화과나무 아래의  
나다나엘을 보신 주님은  
그 영혼에 참 빛과 생수로  
다가와 주셨습니다.  
열린 하늘 보좌를 밝혀주시고  
온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 
그의 나사렛 예수님 되시었습니다.

칠후 같은 어두움에 붙들렸던  
막달라 마리아 영혼 속에  
진정한 구원을 주신 구주 예수님!!  
참된 안식과 평강 속에 주  
님 한분 따르며 섬기는  
진정한 삶을 주시고  
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님으로 서주신  
그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님이셨습니다.

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익한 나를  
거절할 수 있음도  
때때로 밀려오는 흉흉한 파도를  
넘어갈 수 있음도  
내게 대하여 서주신 주님!!  
내게 대하여 살아주시는 주님!!  
오직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 
일어서게 하시는  
그의 이름은  
나의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.

내게 값없이 허락해주신  
그의 피와 살은  
이 땅에서 오직 내가 마셔야 될  
참된 음료이며  
내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입니다.

내가 오직 사랑하고 기대며 따르고픈  
영원히 찬양드리고픈  
나의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.

**주님 발 앞에 엎드려**

정형모

주님 안에서 지나온 길에  
허락하신 생명의 깨우침,  
끊임없는 풍성한 말씀,  
한 밤을 두 무릎 조아릴 수 있는  
기름 부어주심,  
주님 이름으로 섬긴 영광,  
별 헤아리듯 많은 축복들.  
그러나 그곳이  
제가 머물 터는 아니기에  
일어선 마음으로  
조용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봅니다.

“사랑하는 자여! 관찮고 좋아 보이는  
그 어떤 것보다 오늘 평범한 이날에  
나와 함께 사는 삶이 온전해 보렴”

들려주시는 은밀한 그 음성에  
감사드립니다. 주님!

“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 
예수를 바라보자!” (히브리서 12장 2절)



**PALOUSE KOREAN CHURCH**



2017년 12월 24일(51주) 31권-51호

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 
Pullman, WA 99163 Phone 978-807-4092

Website: pullmanpkc.org